

대전음악60년, 그 역사와 현재 그리고 전망*



문옥배 음악평론가/중앙대강사

1. 머리말

본 글은 1945년 이후 2000년대까지 대전음악사회의 역사적 흐름을 살핀 것이다. 한국음악사회의 모든 활동과 연구는 서울 중심이어서, 지역음악사도 한국음악사의 한 장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소외되어 왔다. 이제 지방자치제 이후 지방화시대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지역문화는 이제 더 이상 서울의 부수적인 문화가 아닌 적극적인 자기정체성을 갖는 문화로 태어나고 있다.

이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지역문화의 역사이다. 역사란 단지 과거의 것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밝혀 현재를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미래의 좌표를 잡아가게 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대전음악문화의 올바른 좌표설정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이 대전음악사인 것이다. 곧 대전음악사는 20세기 대전음악사회가 무엇이, 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핌으로서 대전음악문화의 정체성을 찾고 나아가 미래의 방향 모색을 위한 작업인 것이다.

필자는 대전음악사의 시기구분을 크게 세 시기로 설정하였다. 세 시기는 각 시기의 큰 변화가 무엇인지에 중점을 둔 전환기적 관점에서 기술하였다. 제1전환기는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로 중등학교 교사 중심으로 지역음악문화가 구축되어가는 시기이며, 제2전환기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로 대학의 전문음악가 중심으로 음악사회와 음

* 본 글은 필자의 저서 『대전음악 60년사』(예술출판사, 2008)의 내용을 가필(加筆)한 것이다.

악시장의 구조가 변화되는 시기이며, 제3전환기는 2000년대 이후로 음악의 물적·인적 인프라의 변화로 새로운 음악사회의 구조가 전개되기 시기이다.

역사란 있었던 모든 사건의 나열이 아니다. 그 시대의 현상과 변화의 중심에서 있었고, 전후 시대와 영향사적(影響史, Wirkungsgeschichte) 관계를 갖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글은 해방 이후 60년간 대전지역에서 있었던 음악적 사건과 현상 중 지역문화와 음악사회에 영향을 미친 사건과 현상을 중심으로 서술할 것이다. 지면의 제한으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점이 있음을 밝힌다.

2. 해방 직후

해방 직후 지역의 음악활동은 전문 음악인의 부족과 사회적 혼란으로 활발하지 못하였으나, 음악활동을 위한 단체가 조직되기 시작하면서 활동을 맥을 이어갔다. 1943년 개교한 대전사범학교에서 1946~54년까지 교사로 재직했던 작곡가 구두회(具斗會, 1921~ , 후에 숙명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에 의해 1946년 <대전향과혼성합창단>이 조직되었고, 같은 해 <YMCA합창단>이 창단되어 조광혁(趙光赫)이 지휘를 맡았다. 1946년 9월에 성악가 김영태(金永泰)에 의해 <김영태성악연구소>가 개원되었다. 해방 직후의 지역의 성악 활동은 이 세 단체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김영태성악연구소 출신인 노성주(盧聖柱, 후에 대전보건전문대 교수로 재직)는 1948년 6월 미군정청 문교부 주최 전국음악콩쿨대회에서 수석 입상하는 성과를 올렸고, 1970년대까지 지역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성악가였다.

1948년 <충남예술위원회>가 조직되었고, 1949년 4월에 <충남음악협회>가 조직되어 김창옥이 회장을 맡았으나, 활동 없이 조직 그 자체로 끝나 버렸다. 1949년 12월에 오태균·이해사(李海史) 등을 중심으로 <대전관현악단>이 조직되어 시공관(市公館, 현 중앙극장)에서 연주회를 개최하였으나 역시 지속적이지 못하였다. 또한 같은 해 <음악교육연구회>가 조직되어 활동하였다.

해방 이후의 음악활동은 중등학교의 음악교사가 담당하였다. 당시 음악인으로는 송운암·조광혁·오태균·남철우·이상덕·김영태·안일승·이완복 등을 들 수 있다. 송운암(宋運巖)은 대전중학교에 재직하면서 바이올린 연주활동을 하였고, 조광혁은 충남여중과 대전여고에 재직하면서 합창지도자로 활약하였다. 오태균(吳泰均)은 바이올리니스트로 실내악단을 결성하여 활동하였고, 이상덕(李相惠)은 클라리넷 주자로

대전공립중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면서 관악 실내악 활동을 하였다. 남철우(南哲祐)는 대전공업학교에 재직하면서 성악가로 활동하였고, 김영태도 대전사범학교에 재직하면서 성악가로 활동하였으나 한국전쟁 이후 월북하였다. 유성초등학교에 재직한 이완복은 유성국민학교 취주악대를 조직하여 활동하였고, 대전사범학교 등에서 재직한 안일승(安一承, 1925~)은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 지역의 여러 공연에 반주자로 많은 활약을 하였다. 1936년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했던 김창옥(金昌玉, 1918~69)은 대전사범학교(大田師範學校)의 재직시절 지역에서 최초로 밴드부를 조직하여 육성하였다. 당시에는 공연장이 없어 대부분의 음악회가 극장에서 개최되었고 주로 시공관(市公館, 현 중앙극장)에서 이루어졌다.

3. 제1전환기(1950~70년대)

3-1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지역에서 활동하던 음악인 중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월북한 자와 중앙으로 진출한 자 그리고 새로 지역으로 들어온 자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음악사회는 새로운 질서가 전개되었다.

1951년 전통음악계에서는 김창희(金昌熙)를 중심으로 민간국악단체인 <대전정악원>이 설립되어 활동하다가 1965년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충남지부>로 흡수되었다. 무형문화제 제23호 가야금산조 예능보유자인 함동정월(咸桐庭月, 1917~94)은 해방 이후 1954년에 대전에 이주하여 3년 동안 <대전국악원>원장을 맡아 활동하였다. 1954년 1월 <충남음악협회>가 결성되어 초대 지부장에 서창선(1953~55), 부회장에 구두회, 총무에 김용필 등이 맡았다. 이 단체는 1963년 창립되는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충남지부>로 연결되는 전신(前身)이다. 1952년 <충남음악연구회>가 발족되어 안일승이 상당기간 이끌었는데, 이들은 음악의 저변확대를 위해 음악감상회 활동에 힘을 기울였다. 1957년에 대전KBS에 <대전방송어린이합창단>이 창단되었고, 지휘는 윤창국(현재 보리수예술단 단장)이 맡았다.

1959년 10월 대전사범학교 예술제에서 지역 최초로 오페라가 무대에 올려졌다. 작품은 창작곡인 <고구려의 딸>로, 당시 대전사범학교의 국어교사였던 양장호(梁長鎬)

의 각색·연출과 음악교사였던 안일승에 의해 작곡되었다. 초연은 안일승의 지휘로 동화극장에서 공연되었고, 반주는 대전사범취주악단이 맡았다. 3막 5장으로 구성된 이 오페라는 지역 음악인에 의해 창작된 최초의 오페라이자 대전에서 최초로 공연된 오페라였다.

1950년대 지역음악사회의 한 축을 담당했던 것은 학교의 취주악대였다. 일제 강점기부터 활동을 이어온 학교의 취주악대는 학교 안팎에서 많은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대전공립중학교(대전고 전신), 대전공업중학교(대전공업 전신), 대전사범학교 등이 당시 활동했던 학교악대였다.

3-2 1960년대

1953년에 결성되어 활동하던 <충남음악협회>는 1963년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충남지부>(이하 충남음악협회로 지칭)로 새롭게 출발한다. 이후 대전시가 직할시 승격되어 충남지부로부터 분리되어 대전지부(1989년)가 될 때까지 지부장은 김창옥·안일승·이완복·최영철·강창식·임만기·이근호·유영길 순으로 이어진다.

1962년 10월에 <대전방송관현악단>과 <대전방송합창단>이 창단되었는데, 관현악단은 서영원이 지휘를, 합창단은 이근호(李根浩, 1934~)가 지휘를 맡았다. 이 악단은 12월에 창단 공연을 가졌고, 다음 해인 1963년 5월 31일에 시민관(市民館, 현 동양백화점 자리)에서 제2회 공연을 개최했으나 이 공연을 마지막으로 해체되고 말았다.

또 하나의 민간합창단으로 <대전오라토리오합창단>이 활동하였는데, 지휘는 당시 전도사였던 남기철(후에 목원대학 학장)이 담당하였고, 그후 이근호가 지휘를 맡았다. 이 합창단은 매년 연말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정기연주회로 가졌고, 이를 계기로 <대전메시아협회>가 창립되어 매년 <메시아> 공연을 주관하였다. 1961년 대흥동 천주교회에서 <수요음악회>가 발족하여 음악애호가들의 동호회 역할을 하였고, 1964년에는 <YMCA합창단>이 조직되었다.

1962년 3월 <한국국악협회 충남지부>가 창립되어 초대 지부장에 남정섭(南貞燮), 부지부장에 하일환(河一煥)과 권용세(權容世, 1915~2002)가 맡았다. 1965년에 지부장을 임윤수(林允洙, 1917~2004)가 맡으면서 그 산하에 <대전정악원>(원장 홍공식), <대전시우회>(詩友會, 회장 임윤수), <대한민속예술학원> 등을 두고 국악교육과 보급을 시작하였다. 1962년에 <대전국악원>의 김숙자(金叔子)가 공보부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공동주최한 제1회 신인예술상에서 특상을 받았고, 문하생과 함께 동양극장에서 창극 <이순신>을 공연하기도 했다. 권용세는 1961년 <대전정악원>을 설립하여

홍금식 변호사를 원장으로 추대하고 율객(律客)과 동호인을 모아 매주 율회(律會)를 개최하였으며, 1972년 <대전국악원>을 설립하였다.

1963년에 작성된 <국악 발전에 대한 취지문>과 <대전정악원 개강 안내문>은 당시 지역 국악 현실과 악관(樂觀)을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국악 발전에 대한 취지문>

고지성현(古之聖賢)이 예악사어서수(禮樂射御書數)라 하여 오인(吾人)의 일상행의(日常行儀)에 악(樂)의 중요성을 논(論)하였고, 성군 세종은 악(樂)을 모르는 자 위정자(爲政者)가 될 수 없다 하였고, 현하(現下) 우리나라 위대한 고유문화인 국악은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이 지적(指摘)되어, 차츰 그 유지육성(維持育成)이 고창(高唱)되어 가는 이때, 특히 정악(正樂)은 과거 우리나라 상류층에서 숭상해왔기 때문에, 세태(世態)의 변천과 더불어 점차 그 유지발전에 허다(許多)한 애로(隘路)를 면(免)하지 못하는 바, 소생(小生) 등(等) 차(此)를 개탄(慨嘆)한 나머지 비록 만시지탄(晩時之歎)이 유(有)하오나, 금반(今般) 국악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그 목적달성에 유종(有終)의 미(美)를 거두고자하는 바, 우선 당면한 문제가 재정(財政)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간(其間) 회원간의 결의로써 회원 자신은 물론 각계각층 유지인사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존할 도리 밖에 없다는 결론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별첨한 국악발전 계획서와 더불어 그 취지를 호소하는 바이오니, 동호제현(同好諸賢) 및 유지인사 각위(各位)께옵서 십분양찰(十分諒察)하시와 대동보조(大同步調)로서 최대의 성원 있으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1963년 10월
대전정악원 회원일동

1961년 5·16 이후 1960년대 초에는 <재건국민운동 충남지부> 주최로 <국민개창운동>이 일어났는데, 직장을 찾아가 국민가요를 가르쳤던 합창운동이었다. 국민개창운동이 시행되면서 각 직장마다 합창단이 창단되었고, 이는 1960년대 지역 합창운동의 계기가 되었다. 당시 활동했던 대표적인 합창단으로는 <대전조폐공사합창단>, <충남도청합창단>, <대전시청합창단>, <체신청합창단> 등이었다. 이러한 직장합창단의 활동이 계기가 되어 충청남도 시군 합창경연대회가 매년 도청 주최로 개최되었다.

1960년대부터 대전에는 중·고등학교에 취주악대가 창단되는데, 1958년 창단된 보문고등학교를 필두로 1962년 대전상업고등학교 · 1968년 대성고등학교 · 1963년 한밭중학교 등에 취주악대가 조직되었다. 이러한 취주악대의 조직은 1970~80년대 초까지 한국의 관악계를 주도하였던 대전관악계의 초석이 되었다.

1960년대 음악활동의 중심은 중·고교의 음악교사였다. 대전사범학교의 교사였던 작곡의 안일승, 대전고등학교의 교사였던 관악의 김종석, 대전사범학교 출신인 관악의 김성기(金成基, 1936~), 한밭중학교 교사였던 작곡의 방인석(方仁錫, 1927~), 대전방

송합창단 지휘자를 지낸 작곡의 이진태(李鎭太, 1923~), 공주중학교의 교사였던 성악의 이성중(李聲鐘, 1936~) 등이 있다.

3-3 1970년대

1970년대에는 관현악운동이 전개된다. 1971년 6월 5일 <대전시교향악단>이 창단되어 가톨릭문화회관에서 창단공연을 가졌고, 73년 11월 16일에 대전극장에서 제2회 공연을 가졌으나, 경제적 문제와 연주자의 부족 등으로 더 이상 활동을 이어가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당시 지휘는 최영철이 맡았다.

1976년 12월 21일 <대전관현악단>이 창단되어 대전고등학교 강당에서 창단연주회를 가졌으며, 단장에 서창선, 부단장에 안일승, 지휘에 임만기(林萬基)·최영철, 인스펙터에 강창식, 악장에 고영일(高英一), 사무장 장홍용(長弘鎬) 등이 맡았다. 이때부터 지역음악인들은 대전시립교향악단의 창단을 목표로 움직였고, 이 목표는 1980년대에 들어 이루게 된다. 1976년 <상록실내악단>이 창단되어 동형춘이 지휘를 맡았고, 1978년 9월에는 <한밭교향악단>이 서현석의 지휘로 창단공연을 가졌다. 아마추어 민간합창단으로 <대전합창단>이 창단되었고, 단장에 엄문용, 지휘에 이근호가 맡았다.

1970년에 지역 최초의 전문음악교육기관으로 목원대학에 음악교육과가 신설되었고, 1976년에는 기악과가 신설되었다. 곧 목원대학 음악교육과와 기악과의 졸업생들은 1970년대 대전관현악운동과 대전·충남의 중등음악교육의 주역으로 활동하였다.

1973년 11월 <한국관악협회 충남지부>(일반적으로 대전관악협회라 부른다)의 창립으로 대전관악계는 전환기를 맞는다. 대전관악협회의 창립은 지역의 학교 관악부를 엮는 구심점이 되었다. 초대 지부장에는 박종완(대전상업고), 부지부장에는 강창식(취주대 교수), 노덕일(공군교육사 군악대장), 유영길(대신고), 사무국장에 송인국(보문고) 등이 선임되었다. 1970년대 학도호국단의 부활은 각 고등학교에서 취주악대의 창단과 활발한 활동의 요인이 되었다. 1972년 충남상업고, 1973년 대신고, 1973년 유성농업고(현 유성생명과학고), 1976년 남대전고, 1977년 청란여고, 1978년 동아공고 등에 취주악대가 창단되어 학교 취주악대의 전성기를 맞는다. 그 결과 1970~80년대 초까지 KBS 전국관악경연대회(현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 한국관악협회·KBS 주최)에서 보문고·대신고·대성고·동아공고·대전상고 등 대전의 고등학교 취주악대가 연속 금상을 휩쓸어 버린 것이다. 따라서 대전관악계는 한국 최고의 관악주자들을 생산해 내는 지역으로 부상하였다.

1970년대 지역 음악사회의 사건 중의 하나는 관악계의 일본과의 교류이다. 대전관

악협회가 중심이 되어 일본과의 음악교류를 추진한 것이다. 1974년 11월 북륙지구(이시카와현, 도마야현, 후쿠이현 등 3개 현을 말함)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1975년 8월 16일 대전의 고교에서 선발된 연합관악합주단 60여명이 도일하여 북륙지구에서 연주를 하였다. 이후 대전관악계는 일본의 다른 지역과도 음악교류를 맺어 현재까지 매년 일본의 관악부가 대전을 찾아 공연하고, 지역의 학생 취주악대가 일본을 방문하는 교류 연주가 이어지고 있다.

1970년대는 음악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음악활동만으로 경제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음악사회 체제가 아니었다. 대학의 음악과도 없는 상황이어서 음악인이 몸담을 수 있는 음악활동의 장은 바로 중·고등학교였다. 곧 1960년대뿐만 아니라 1970년대도 음악활동의 중심은 학교 음악교사들이었다.

당시의 공연장은 미공보원·시민관(동양백화점 자리)·중앙극장·경심관(대전극장)·가톨릭문화회관(1972년 개관)·대전고등학교 강당·호수돈여고 강당(1963년 개관) 등이었다. 1979년 대전시민회관의 개관은 1980년대 활발한 공연 활동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1960~70년대에는 연주 중심의 음악 활동이어서 창작과 음악비평 활동은 드물었다. 창작과 비평을 하던 음악인은 안일승이었다. 그는 교사이자 피아니스트로, 작곡가로, 비평가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대전음악사회 음악비평의 제1세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1980년대의 제2세대인 노동은, 그리고 1990년대의 제3세대인 문옥배로 이어진다. 1960년대의 음악비평은 연주평보다는 시평, 음악평을 주로 다루었고, 연주활동이 활발해진 1970년대 중반부터 연주평이 증가하였다.

국악계의 연정(燕亭) 임윤수는 1970년대 후반 개인적으로 〈연정국악도서관〉을 운영하였는데, 이는 1981년 7월 개원될 〈대전시립연정국악연구원〉의 모체가 되었다.

4. 제2전환기(1980~90년대)

4-1 1980년대

1980년대의 대전음악사회는 전환기를 맞이한다. 1980년대의 특징은 대학 음악과의 설립, 197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전문음악가의 등장, 새로운 음악단체의 창단, 많은 공연의 생산 등이다. 그럼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한 사회적 요인은 무엇인가 살펴보자.

1980년대 대전음악사회의 변화를 이끈 요인은 각 대학의 음악과 신설이다. 각 대학의 음악과 신설은 교육을 담당할 교강사인 전문음악가의 유입, 다음 세대의 전문 음악인의 배출, 연주시장의 활성화, 교육시장의 활성화 등을 이루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1980년대 들어 충남 대전지역에 설립된 음악과는 1980년 공주사범대학 음악교육과, 1981년 배재대학교 음악교육과, 1982년 충남대학교 음악과, 1984년 침례신학대학 교회음악과, 1986년 한성신학대학 교회음악과 등이다. 이러한 대학 음악과의 설립은 우선 학생을 가르칠 교수요원을 필요로 한다. 이는 곧 대전음악사회에 기량 있는 전문 음악인의 등장과 연주시장의 전문화의 길을 여는 것을 의미한다.

1980년대에는 1970년대에 비해 음악단체와 악단의 창단 붐이 일어났다. 여기에는 대학의 교강사들의 역할도 중요했지만, 1980년 중반부터 배출되기 시작한 각 대학 졸업생들이 한 몫을 하게 된다. 1980년대 초에 설립된 각 대학의 음악과는 1980년대 중반부터 졸업생을 배출해 내기 시작한다. 이는 곧 1980년대 중반 이후 대전음악사회의 보다 왕성한 활동을 의미한다. 이들로 인하여 대전음악사회는 인적 자원의 양적 풍성함을 맞이하게 된다. 배출된 음악인들은 자신들의 활동무대를 찾기 시작했고, 1980년대 말 이후 1990년대에 창단되는 악단들은 이들에 의해 구성된다. 대학의 음악과 졸업생들의 등장은 대전음악사회의 저변확대를 의미한다. 졸업생들에 의해 많은 음악교습소나 음악학원 및 개인레슨자가 생겨 비전공자들의 음악 배움의 기회가 확대되었다.

1980년대 최대의 변화는 <대전시립교향악단> · <대전시립합창단> · <대전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창단이다. <대전시립합창단>은 1981년 12월 22일 서강북의 지휘로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창단공연을 가졌고, <대전시립교향악단>은 1984년 5월 2일 정두영의 지휘로 창단공연을 가졌다. 1970년대부터 시립악단의 창단을 열망하고 예비악단을 창단하여 준비하여온 음악인들의 노력과 대학의 음악과의 설립의 결과물이다. <대전시립합창단>은 1980년 4월 창단한 <대전합창단>(지휘 서강북, 단장 안영진)이 창단

의 직접적 모체가 되었고, <대전시립교향악단>은 1970년대의 <대전관현악단>과 같은 노력이 있었다. 1982년에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창단되었는데, 초대 지휘자로 안동민(1982~87)이 취임하였다.

1980년대에는 대전 최초의 음악매니지먼트인 <목요문화회>(대표 황길연)가 창립되었고, 대전 최초의 음악정보지 <목요문화가이드>(후에 <대전문화>지로 개명)를 창간하여 음악애호가와 전문 음악인들에게 대전의 음악회 정보를 소개함으로써 문화축매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국예술인총연합회 충남지부에서는 <충남예술>이라는 잡지를 창간하였다.

1980년대 들어서 197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음악회가 증가한다. 음악회의 증가를 살펴보면, 1980년대 지역을 대표하는 공연장이었던 대전시민회관의 경우 연간 연주회수가 1982년에 75회, 1983년에 114회, 1984년에 127회, 1985년에 98회(한 달간 보수작업으로 횟수가 떨어짐), 1986년에 154회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회를 열 수 있는 공연 공간의 확충은 음악가로 하여금 음악회장 선택의 폭을 넓게 하였다. 1980년대 들어 기존의 공연장인 대전시민회관과 가톨릭문화회관 외에 기독교봉사회관(1981년 개관)·한남대 성지관(1986년 개관)·한국과학기술원 대강당(1986년 개관) 등이 개관되었다.

1980년대 지역 최초의 오페라단 창단도 주목할 만하다. 1988년 한국음악협회 충남지부(지부장 유영길)를 중심으로 지역 성악인들이 모여 지역 최초의 오페라단인 <대전 오페라단>(단장 안동민)을 창단하고 첫 공연으로 9월 18일 대전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현제명 작곡의 <춘향전>을 무대에 올렸다. 1989년 11월 20일 또 하나의 민간 오페라단인 <충청오페라단>(단장 양기철)이 창단되어 다음 해인 1990년 4월 20일 창단 공연으로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를 무대에 올렸다.

1984년부터 졸업생을 배출하기 시작한 공주사범대학 음악교육과와 1985년부터 배출한 배재대학교 음악교육과는 그동안 목원대학 음악교육과 졸업생 외에는 교사인력이 없어 부족을 겪었던 지역 중·고등학교의 음악교육계에 음악교육전문가를 확보하는 성과를 낳았다.

1982년 7월 <한국작곡가협회 충남지부>(초대 지부장 강창식)가 창립되었고, 이 지부가 한국작곡가협회의 지부 중 서울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지속성을 가지고 활동해온 단체여서 주목할 만하다.

음악이론계는 지역 대학에 음악이론과가 없고, 국내에서도 1982년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최초로 음악이론전공이 생겼기에 음악학자는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목원대학 음악교육과 교수인 노동은은 대전 유일의 음악학자였다. 음악학자의 지역음악사회에서의 역할은 순수 학문적인 연구도 중요하지만, 지역 음악문화

에 비평활동이었다. 1970년대까지 지역음악사회의 비평활동은 지역 1세대 음악가인 작곡가 안일승에 의해서만 이루어져 왔다. 그 역할을 1980년대에는 노동은이 이어받은 것이다.

대전음악사회의 한국전통음악계의 활발한 활동은 대학 음악과의 설립과는 무관한 이채로운 현상이었고, 그 중심에는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이 있었다. 1988년 목원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소수의 한국전통음악 전공자를 선발하였지만, 공식적인 전통음악 관련학과는 설립되지 않았다. 모든 지역 대학들이 서양음악관련 학과만 설립한 것이다. 1981년 7월 14일 연정(燕亭) 임윤수에 의해 개원된 <대전시립연정국악원>(개원 때는 국악연구원이었고, 1989년에 대전시립연정국악원으로 개명함)은 지역 전통음악을 이끌어온 유일한 기관이었다. 1989년 2월에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대전직할시지회>가 창립되어 지역 국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였다.

1980년대 변화 중의 하나는 전국 최고수준을 자랑하던 대전관악계의 쇠퇴이다. 1970년대 학도호국단의 부활로 각 고등학교에서 취주악대의 활동이 활발하였고, 그 결과는 전국관악경연대회(한국관악협회, KBS 주최)에서 보문고·대신고·대성고·동아공고·대전상고 등 대전의 고등학교 취주악대가 연속 금상을 휩쓸어 버린 것이다. 따라서 대전관악계는 한국 최고의 관악주자들을 생산해내는 곳이 되었다. 그러나 국가의 중등교육정책이 바뀌면서 취주악대가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4-2 1990년대

1980년대의 대전음악사회는 197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도약기를 맞이하였고, 그 특징은 많은 수의 전문음악가의 등장, 음악단체의 창단, 음악회가 열렸다는 점이다. 1990년대는 이러한 1980년대의 변화가 성과로서 나타나는 시기이며, 2000년대 새로운 대전음악사회로의 변화를 준비하는 시기였다.

1990년대 들어서도 대전에 각 대학에 음악과가 신설된다. 1991년에 설립된 혜천대학(당시 대전전문대)과 1993년에 설립된 중부대학교에 음악과가 신설되었고, 목원대학교는 <한국음악과>를 신설한다. 특히 지역 최초의 <한국음악과> 신설은 지역음악사회에 대 사건이었다. 기존의 타 대학에서 사용하는 명칭인 <국악과>가 아닌 국내 최초로 <한국음악과>라는 명칭을 통하여 전통보존이나 과거지향이 아닌 미래지향의 한국전통음악의 창출을 목표로 하였다.

1992년 지역의 원로 음악인인 안일승이 사제를 출연하여 <안일승 음악상>을 제정했다.

1989년 대전이 충청남도에서 직할시로 분리된다. 이에 따라 음악협회도 <한국음악협회 충청남도지회>로부터 분리되어 <한국음악협회 대전직할시지부>(이하 대전음악협회 칭함)로 다시 재편되었고, 초대 지부장으로 유영길(1989-91)이 맡게 된다. 1994년에는 <대전광역시 합주지도자연협회>가 창립되어 12월 19일 창단공연을 가졌다.

1990년도에는 또 하나의 오페라단인 <성곡오페라단>(창단 당시 명칭은 충남오페라단, 단장 백기현)이 창단되어 1991년 창단공연으로 푸치니의 <토스카>를 무대에 올렸다. 1990년대 대학 음악과의 신설 및 정원 확충으로 교강사들이 확충되어 전문음악가가 늘어났고, 1980년대 중반 이후 음악과에서 배출된 젊은 음악가로 인하여 지역의 인적 인프라가 풍부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창단되었으나 여러 사정으로 지속되지 못하고 사라진 악단도 있었으나, 새롭게 많은 악단이 창단되었다.

1990년대에도 몇 개의 공연장이 신축되었다. 그런데 그 공간은 1980년대에 신축된 공연장과는 차별화되었다. 1980년대의 공연장이 강당의 개념이었다면, 1990년대에 신축된 공간은 공연장의 개념이었는데, <엑스포아트홀>(1993년 개관), <대덕과학문화센터>(1993년 개관), <우송예술회관>(1992년 개관), <평송청소년수련원 대강당>(1997년 개관) 등이 그것이다. 새로운 공연장의 신축은 공연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음악의 생산체제 변화에 기여한 곳이 바로 대전시립악단의 사무국이었다. 1980년대 단무장이 연주자가 겸임하던 것에서 탈피하여 공연업무만 관장하는 전문 사무장 체제로 변화하였고, 특히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예술경영을 전공한 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의 스텝진 확보는 기획과 마케팅 전략의 변화를 가져왔다. 대전공연장의 좌석제, 로비공간문화, 체계화된 공연진행 등 새로운 공연생산체제의 시도는 이들에 의해 최초로 시도되었다.

1990년대 초에 중구문화원(당시 대전문화원)은 문화예술정보지로 월간지 <대전문화사랑> 편집장 한상우)을 창간한다. 대전문화사랑은 1990년 4월호를 창간호로, 2000년 12월 폐간까지 통권 127호를 출간하였다. 대전문화사랑은 단순히 문화정보지의 역할에서 벗어나 대전에 숨겨져 있는 지역문화유산을 찾아 소개하였고, 고정적으로 전문가에 의한 음악비평과 미술비평을 수록하여 지역 문화비평지로서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1990년대 창작계의 큰 사건 중의 하나는 <한국악회>(회장 송인국, 1992년 3월 창단)에 의한 <대전현대음악제>(음악감독 김규태)의 탄생이었다. 1992년 시작된 대전현대음악제는 1990년대를 거치면서 매년 일주일간에 걸쳐 열리는 전국적 규모의 현대음악 축제로 자리를 잡았다. 매년 현대음악과 관련된 주제를 설정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서양의 주류 현대음악의 소개, 한국 중견 작곡가들의 창작곡 위촉 연주, 공모를 통한 청년작곡가들의 작품 연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에 현대음악의 소개와 작곡가들의 활동의 장을 마련해 주었다.

1993년 지역일간지인 대전일보사에서 <전국클래식기타콩쿠르>를 개최하였다. 이

콩쿠르는 운영의 문제로 2004년 제14회를 마지막으로 휴식년에 들어가기까지 국내 클래식기타계에서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등용문으로서 역량 있고 재능 있는 기타리스트를 발굴에 기여해 왔다.

음악이론 및 비평계는 대전의 대학에 음악이론학과(음악학)가 없으며 또한 교수진도 없는 점을 인식한다면 이론-평론계라는 말 자체를 쓰기가 모호하다. 활동하고 있는 음악학자로 노동은에 이어 90년대과 문옥배가 등장한다. 문옥배는 1998년 당시 동아일보와 함께 국내 2대 음악평론 신춘문에 중 하나인 〈객석예술평론상〉을 수상(제5회)하여 한국 음악계에 음악평론가로 등단한 후, 서울에서 음악평론가와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에서 총무로 활동하다가 1990년 고향인 대전에 내려와 평론활동과 학술활동을 전개하였다.

1997년 6월 창단발표회를 가진 창작모임 〈주창회〉(회장 채경화)는 다른 창작모임과 사뭇 다른 자신들만의 뚜렷한 정체성으로 지역음악사회에 자리매김하였다. 주창회는 '주제가 있는 창작 음악회'의 약자로, 1996년 11월 충청권에서 활동하는 다섯 명의 여성작곡가들이(채경화·김덕규·오이돈·고태은·김영채) 창단한 창작모임이다. 주창회는 매회 주제를 가지고 음악회를 준비하며 그 주제는 이 시대의 사회 문화적 쟁점을 주제로 하여 음악과 사회를 연결한 음악을 발표해 왔다.

90년 말의 현상 중의 하나는 지역출신의 젊은 음악인들의 귀향이다. 이들은 지역 대학에서 공부를 하였거나 타 지역에서 공부한 후 대학원이나 외국 유학을 마치고 귀향하여 활동을 시작하려는 젊은 음악가들이다. 특히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지역 대학을 졸업하고, 시립교향악단이나 시립합창단에 활동하다가 외국에 유학한 후 귀국하여 활동하려는 연주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1980년대 지역 대학에서 뿌린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어 2000년대에는 활발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 의해 새로운 악단이 창단되거나 독주무대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0년대에는 이들에 의해 대전음악사회가 변화를 맞이한다.

5. 제3전환기(2000년대)

1970년대까지 대전음악사회를 이끌어온 양악 제1세대는 1980년대가 되면서 제2세대 음악가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게 된다. 즉 1980년대에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제3세대 음악가들이 활동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 들어 이들에 의해 보다 활발한 대전음악사회가 전개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 대전음악사회 최대의 사건은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의 개관(초대 관장 조석준)이다. 2003년 10월 1일 개관한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은 1996년 3월 16일 공사 착공 후 약 8년 만에 개관하면서 대전공연문화사에 한 획을 그었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은 총 사업비 966억 원이 소요된 국내 최고시설의 공연 공간으로, 시 직할의 공연장임에도 불구하고 대관 외에 자체기획공연을 갖는 기획공연장으로 운영방향이 설정되었다. 국내 공연장 중 서울예술의전당처럼 재단법인의 공연장을 제외하고 시·도 직할의 공연장 중 기획공연 공연장으로 성격을 정한 곳은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 유일하였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의 개관은 지역 공연예술의 르네상스를 여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지역 공연예술의 르네상스의 도래에는 2000년대 들어 확대된 인적 인프라가 한 몫을 하였지만,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의 훌륭한 생산조건과 초청 및 공동제작을 위한 지원정책이 새로 등장한 인적 인프라의 공연 욕구를 갖게 만든 요인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수용자에게도 공연문화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수용체제의 변화에 한 몫을 하였다.

1990년대에 나타난 음악애호가들의 지역악단의 공연에 대한 소외가 2000년대 들어서는 심화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의 개관 이후 기획공연으로 외국의 저명한 악단들의 공연이 연중 개최되면서 음악애호가들의 공연에 대한 선택의 폭은 넓어졌으나, 지역악단에 대한 소외는 상대적으로 심화되었다. 곧 음악수용의 편중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2000년대 들어 지역 음악계의 인적 인프라의 확대는 더욱 가속화 되었는데, 무엇보다 외부의 대학원이나 외국에서 공부를 마친 음악가들이 지역에 활동의 터전을 잡았기 때문이다.

2000년대 들어 지역 연주자와 악단들은 공연기획에 있어 공연제작의 모든 과정을 매니지먼트에 대행시키는 사고가 정착되었다. 더욱 넓어진 매니지먼트시장은 기존 <대전예술기획>(대표 황하연) 외에 <인트로>(대표 김정훈), <공간예술기획>(대표 김은숙), <멘토>(대표 김상균) 그리고 지역 온라인 공연정보사인 <아르스노바>(대표 박정수) 등을 설립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 지역 문화예술정보지 역할을 수행했던 <대전문화사랑>이 2000년 12월(통권 127호) 재정적 문제로 폐간에 들어갔으며, 이후 2000년 2월 대전예총에서 창간한 <월간 대전예술>이 지역 문화예술정보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2003년 2월 월간공연전문지 <클래식컬>이 창간되었다. 클래식컬은 기존 문화예술정보지와 달리 지역 최초의 공연예술전문지로서 예술인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2000년대 들어 창작계는 <대전현대음악협회>(DCMA)가 창단되고, <충남대전작곡가협회>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한다. 사단법인으로 시립음악단체 후원회가 발족된 것도 특징인데, 시립교향악단은 <높은음자리표>(초대 이사장 임채환 블루코드 대표)가, 시립합창단은 <하모니>(초대 이사장 안기호 대전프티벨 대표)가 발족되었다. 대전시

립소년소녀합창단은 단원 구성의 폭을 넓혀 초등학생을 배제하고 대학생을 추가하여 2003년 시립청소년합창단으로 전환하였다.

2000년의 연주계 현상 중의 하나는 음악페스티벌과 기획시리즈의 개최이다. 이는 지역 악단의 활성화에 기여했고, 애호가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KBS대전방송총국 주최의 <대전실내악축제>,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주최의 <스프링페스티벌>과 <그랜드페스티벌>, 대전음악협회 주관의 <대통령상대전합창페스티벌>, 대전국악축전추진위원회 주최의 <대전국악축전>, 대전기타문화협회 주최의 <대전기타페스티벌>, 시민회관의 기획시리즈 <음악평론가와 함께 하는 음악여행>, 시립미술관 주최의 <시립미술관음악회>, 배재대 주최의 <배재목요문화제> 등이다.

6. 맺음말

과거부터 대전은 '문화의 불모지' 라는 말을 들어 왔으며, 적어도 1980년대까지는 문화의 불모지였다. 엄밀히 구분한다면, 문화 생산의 불모지였다. 애호가들이 공연을 관람하고 싶어도 손을 꼽을 정도의 공연만이 행해졌을 뿐이며, 중앙으로부터의 순회공연도 대전은 지나쳐갔다.

그러나 1990년대 공연예술계의 상황이 변하였다. 곧 생산조건이 변한 것이다. 대전 시립예술단이 자리를 잡아갔고, 음악과를 설치한 7개의 대학에서 음악생산인력이 배출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는 1980년대 지역 대학의 음악과를 졸업한 음악인들이 대학원 및 외국유학을 마치고 대전에 다시 돌아와 전문연주자로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또한 시민회관 외에 우송예술회관, 대덕과학문화센터, 엑스포아트홀,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배재대 21세기관, 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등의 공연장도 생겨났다. 적어도 수치상으로 보면, 대전은 더 이상 문화 생산의 불모지가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문화의 불모지라는 말은 2000년대 들어서도 계속되었다. 이 역시 엄밀히 말한다면, 1990년대는 문화 수용의 불모지였다. 물적 인프라의 구축과 인적 인프라의 확대 등으로 생산조건은 갖추어졌으나, 공연의 객석은 상당수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애호가에게 수용되지 않는 공연, 그것은 의미 없는 생산품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디지털 매체의 발달로 수준 높은 청취능력을 갖게 된 애호가들의 귀를 거론하기도 한다. 이 말에 일면 타당한 점도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닌 것이다. 7개의 공연장이 있으나, 음향적인 면이나 관객서비스 차원에서 전문공연장이라고 할 만한 곳

은 한 곳도 없으며, 서울예술의전당에서 관람해 본 애호가라면 지역의 공연장은 회피하고픈 생각을 들게 하였다. 인적 인프라가 확대되었으나, 그들이 활동할 만한 무대가 없었다. 대전은 공연시장으로서의 물적 인프라와 메커니즘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수치상이 아닌 내용적으로 보면, 문화 생산도 불모지인 셈이었다.

그러나 2003년 10월 1일 전문공연장인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의 개관 이후 지역 공연이 활성화되었다. 애호가들은 다른 공연장에서와는 다른 차원의 관객서비스를 받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람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의 개관은 공연예술인들에게 최상의 공연조건이 마련된 것이며, 애호가들에게 최상의 관람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은 단지 대관기능이 아닌 기획공연장으로 운영되게 되었고, 지역의 역량 있는 공연단체들과 공동제작을 통하여, 지역 공연단체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의 개관은 단지 물적 인프라의 구축뿐만 아니라, 운영에서 지역 공연생산의 활성화와 새로운 관람문화를 정착시킨 것이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의 개관은 지역 공연예술의 르네상스를 여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지역 공연예술의 르네상스의 도래에는 2000년대 들어 새롭게 등장한 공연예술가들의 인적 인프라의 확대가 한 몫을 하였지만,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의 훌륭한 생산조건과 초청 및 공동제작을 위한 지원정책이 새로 등장한 인적 인프라의 공연 욕구를 갖게 만든 요인이기도 했다. 또한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은 지역 공연예술을 한자리로 모이게 했다. 이는 대전문화예술의전당 내에서 공연장르간 교류가 이루어지는 계기를 제공했다. 곧 이전보다 공연예술장르는 한자리에서 만나는 계기를 자주 가질 수 있었다.

2000년대의 대전음악사회는 인적 인프라의 확대로 많은 음악단체가 창단되고 음악회가 증가하였을뿐 아니라 물적 인프라의 확충으로 공연의 생산과 수용조건이 달라졌다. 곧 새로운 구조의 대전음악사회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대전음악사회는 1980년대 이후 등장한 제2세대 음악가들이 중견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제3세대 신진 음악가들의 등장이 전개되고 있는 시기이다.

*

선행연구의 축적이 부족한 지역음악 사연구의 조건 때문에 아래의 참고 문헌 외에 지역 원로 음악인의 구술 사(口述史)적인 증언과 사료(판프렛, 기사)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참고문헌*

- 노동은. <대전음악사 I>, 『대전문화』 대전직할시사편찬위원회, 1992, 창간호.
- _____. <대전음악사 II>, 『대전문화』 대전직할시사편찬위원회, 1993, 제2호.
- _____. <대전의 근대음악>, 『대전시사』 대전직할시사편찬위원회, 1992, 제1권.
- _____. <대전의 민악>, 『대전시사』 대전직할시사편찬위원회, 1992, 제3권.
- _____. <대전의 음악문화, 그 회한과 성숙>, 『한밭문예논단』 대전문화원, 1985, 창간호.
- _____. <대전의 음악문화>, 『음악동아』 동아일보사, 1984, 8월호, 통권5호.
- _____. <대전의 현대음악>, 『대전시사』 대전직할시사편찬위원회, 1992, 제2권.
- 대전시립연정국악연구원 편. 『연정국악원 15년사』 대전광역시, 1996.
- 문옥배. <91년 대전음악계 조망>, 『대전문화사랑』, 1992, 1월호, 통권22호.
- _____. <92 대전음악계 상반기 조망>, 『대전문화사랑』, 1992, 8월호, 통권29호.
- _____. <92 대전음악계 결산>, 『대전문화사랑』, 1993, 1월호, 통권34호.
- _____. <93 대전음악계 결산>, 『대전문화사랑』, 1993, 12월호, 통권45호.
- _____. <95 대전음악계 결산과 전망>, 『한밭예술문화』, 1996, 1-2월호, 통권5호.
- _____. <96 대전음악계 조망>, 『대전문화사랑』, 1996, 12월호, 통권81호.
- _____. <97 대전음악계 결산>, 『대전문화사랑』, 1997, 12월호, 통권93호.
- _____. <98 대전음악계 결산>, 『대전문화사랑』, 1998, 12월호, 통권105호.
- _____. <대전현대음악사>, 『대전문화』,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0, 제9호.
- _____. <대전시립연정국악연구원 개원 20주년, 그 역사적 회고와 전망>, <대전시립연정국악연구원 개원 20주년기념 세미나 자료집>, 대전시립연정국악원, 2001, 7월 10일.
- _____. <2000년 대전음악계 결산>, 『대전문화사랑』, 2001, 1월호, 통권128호.
- _____. <2001 대전음악계 결산>, 『대전예술』, 2001, 12월호.
- _____. <2002 대전음악계 결산>, 『대전예술』, 2002, 12월호.
- _____. <2003 대전음악계 결산>, 『클래식컬』, 2003, 12월호.
- _____. <2004년 대전음악계 결산>, 『클래식컬』, 2004, 12월호.
- _____.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의 운영 현황과 전망>, 『대전문화』,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5, 제14호.
- _____. 『대전음악의 현상과 인식』, 한국학술정보, 2006.
- _____. 『음악사회의 인식과 비평』, 예술, 2007.
- _____. <대전학으로서의 대전음악연구의 현황과 과제>. 『음악과 민족』, 민족음악학회, 2007, 제34호.
- 서창선. <충남의 음악>, 『충청남도지』,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1979, 하권.
- 안일승. <지역음악의 변천>, 『대전문화』,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1995, 제4호.
- 이진태. <충청남도음악>, 『음악연감』, 음악연감편찬위원회, 1966.
- 정년기념문집간행위원회. 『송강 안일승 선생 정년기념문집』, 대교출판사, 1991.
- 편찬위원회 편. <예술편: 음악>, 『대전시지』, 대전시지편찬위원회, 1979, 하권.
- 편찬위원회 편. <예술편: 음악>, 『대전시지』, 대전시지편찬위원회, 1984, 하권.
- 한상복 편. 『충남음협 50년사』 한국음악협회 충청남도지회, 2002.